

“스님의 정신, 모든 생명을 보듬길...”

문수스님 입적 1주기 맞아 군위 지보사에서 부도탑 제막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가르침을 남기고 소신공양한 문수스님의 입적 1주기를 맞아 스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부도탑과 비가 세워졌다. 문수스님선양사업회 준비위원회(공동대표 혜경스님)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집행위원장 정웅기)는 지난 5월31일 군위 지보사에서 ‘무경당 문수종사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주지 돈관스님, 중앙승가대 총동문화

장 원정스님, 총동문화 사무처장 정산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스님, 해인사승가대학 도반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배난시오 부여성당 주임신부 등 이웃종교계에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선양사업회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혜경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문수스님이 소신으로 불보살님과 모든 법계 중생에게 공양을 올린 지 1년이 지났다”며 “문수스님은 못 생명의 아픔을 위해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려고 자타불이의 삶을 실현한 분”이라고 밝혔다.

박희택 사단법인 불교아카데미 원장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를 대표해 추모사를 낭독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사회 곳곳에 퍼뜨릴 것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문수스님의 정신은 이 땅으로 우리 앞에 현전하셨으니 어떠한 견해도 불타지 않고 스님을 정념하는 대중들 곁에 언제나 남아 있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사회화’를 넘어 생명 죽임을 생명 살림으로 전환하는 불사를 새롭게 전개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문수스님의 출가도반으로 평소 절친하게 지낸 각운스님(조계종

재정국장)이 ‘문수, 그대를 보낸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는 편지글을 읽으며 문수스님의 뜻을 오래도록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문수스님과 함께 정진해온 지보사 주지 원범스님도 “연고가 없는 이곳에서 문수종사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스님들에게 감사하다”며 “졸가해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애정으로 부처님을 시봉하고 늘 맑은 수행자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문수남자에게 더 없이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문수스님은 1986년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해인사승가대학을 거쳐 1994년 중앙승가대에 입학해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교와 사회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졸업 후 통도사, 두방사, 묘관음사 등에 주석하며 산문을 걸어 잠그고 무문관 수행을 3년 이상 했다. 스님은 평소 청빈한 생활로 도반들에게 귀감을 보였다. 스님은 자신 명의로 된 통장 하나 없으면서도, 늘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고 한다. 소신공양 이후 살피본 스님의 방에는 낡은 서랍장 하나와 신문봉지가 세간의 전부였다.

이날 군위 지보사에 세워진 부도탑에는 ‘無鏡堂 文殊宗師’라는 글자가 새겨져있으며, 문수종사 비(碑)의 글은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스님이 썼다. 진관스님은 글을 통해 “문수종사가 살신정신으로 소신공양하였기에 그의 정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도반들이 비를 세운다”고 밝혔다.

군위=홍다영 기자



문수스님선양사업회 준비위원회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지난 5월31일 군위 지보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경당 문수종사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신재호 기자

문수스님 1주기 추모 ‘생명평화 한마당’

조계사에서 5일간 ‘스님 뜻 계승’ 다짐

한편 서울 조계사에서는 ‘문수스님 소신공양 1주기 추모 생명평화 한마당’이 지난 5월30일부터 6월3일까지 열렸다. 5월30일 대화마당에는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현웅스님(조계종 교육원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스님,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등 50여 명이 참

석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은 “문수스님의 뜻을 어떻게 사회화하고 이어갈 것인가를 성찰하고 실천해가자”고 강조했다.

법안스님은 이날 ‘문수스님 소신공양 1년, 그 정신과 사회적 의미’를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열띤 강연을

펼쳤다. 법안스님은 “한 해를 돌아보면 나 자신을 비롯해 우리 교단과 사회는 문수스님 소신공양에 대한 의미를 놓고 살았다”며 “이 순간 이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 각해보자”며 말씀을 열었다.

스님은 이어 “4대강 사업은 상당수 국민들이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으로 추진돼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다”며 “문수스님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모든 생명들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로 자기의 한 몸을 역사의 현장에 맡겼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안스님은 소통이 부재한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나부터 주위를 살피고 힘을 보태자”는 당부로 강연의 끝을 맺었다. 스님은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은 모든 존재가 조화롭게 살면서 평생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스님의 원력을 거울삼아 우리 사회 장애의 공업을 헐기 위해 내 작은 힘을 보태겠다는 정직한 생각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자”고 피력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불교계 호스피스 전문병원 ‘첫 삽’

세계적인 규모의 불교계 호스피스 전문병원이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완화의료전문 정도마을 연양 자제(慈濟) 병원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능행스님, 정도마을 이사장)는 지난 5월29일 울산광역시 연양 마하보도교육원에서 자제병원 기공식 및 대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신문사장 수불스님,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장 지현스님, 울산광역시시암연합회장 덕진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스님 등 이날 참석한 2000여 명의 사부대중은 불사의 원만회향과 호스피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을 발원했다. ▶ 관련 기사 8면

내년 완공으로 예정된 자제병원엔 70개의 병상을 비롯해 말기 환자들을 위한 종합클리닉 등 첨단 의료시설이 들어설게 된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면적 727.2㎡(220평) 연면적 3636㎡(1100평) 크기이며, 호스피스 단일 병원으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사례로 알려졌다. 각종 물리치료 및 한방치료와 함께,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전문임상상담사가 불교



자제병원 기공식이 5월29일 경남 연양에서 열렸다.

연양 자제병원 추진위 5월29일 기공식 가저 70개 병상...내년 완공 불교식 돌봄서비스 제공

식 영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의술(延命醫術) 대신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활동을 일컫는다. 지난 2000년 충북 청원에 불교계 최초로 호스피스 전문기관 정도마을을 설립한 능행스님은 호스피스 저변 확대와 체계적인 치료를 위한 자제병원 건립을 계획하고 ‘천일에(愛) 행복기도’ 모금운동을 진행해 왔다. 불교신문 사장 수불스님은 기공

식 법문에서 “삶의 또다른 형태인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제병원이 생명의 이치를 깨닫는 정법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전국 비구니회장 명성스님은 병원 건립을 위해 써달라며 비구니회 1000만 원과 스님 개인이 출연한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능행스님에게 보냈다.

울산=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스님들, 명상 상담 심리강좌에 관심”

교육원, 상반기 연수교육 분석 결과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스님)이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재교육 프로그램인 상설 연수교육의 수료생이 5월 현재 1082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한해 동안 진행될 총 32개 강좌 가운데 13개 강좌가 종료된 결과로, 지난해 상설연수교육에 1500여명의 스님이 수료한 것에 비하면 참가율이 월등히 높다. 이에 대해 교육원 관계자는 “의무교육이긴 하지만, 기존의 주지연수와 달리 스님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포교 일선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강의의 경우 많은 스님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수교육은 종단 스님들의

관심분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사찰의 주지소임을 맡을 스님들이 필수로 들어야 할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스님들이 수강하는 강좌는 스코치능력 향상과정이다. 법문, 강의할 기회가 많은 스님들의 참여가 두드러진 다. 또 최근 사회에서도 관심이 높은 명상, 심리, 상담 등에 대한 강좌도 인기가 높다. 올해 처음 개설된 청소년명상지도과정과 더불어 신도상담지도과정, 불교심리치료 등에는 70여명의 스님들이 참가해 강의를 들었다.

또 교학분야를 보면, 초기불교 특강과 티베트 불교의 힘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초기불교와 티베트 불교는 기존 승가교육에서 배울 수 없었던 분야로, 최근 일반인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세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대인 포교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법을 지도하는 모바일 혁명과 미래지도와 디지털카메라 사진교육도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강좌가 마련돼 있다. 오는 8월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템플스테이 운영과 실제와 22일 예정된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시설 설(유)치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19개 강좌가 예정돼 있다. 종론은 이미 50여 명이 수업을 신청한 상태이며, 올해 처음 개설된 과목인 불교와 자연과학은 최고의 강사진이 참여한다. 교육원은 “종단의 연수교육이 스님들에게 또 다른 수행의 장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어현경 기자 eonak@bulgyo.com

민족사,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출간

10면

교육원 ‘불교자원봉사활동’ 현장을 가다

11면

‘병원전법단’ 출범 1주년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대한불교조계종 병원전법단의 지난 1년은 부처님의 말씀을 소외되고 어려운 환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리고 병원에서 활동하는 스님과 불교자원봉사자들의 교육과 단합을 위해 스스로 바쁘게 정진하고 노력한 지난 1년이었습니다.

제1회 수도권병원 불교자원봉사자대회

2011년 3월 11일 수도권병원활동 자원봉사자들의 단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된 제1회 수도권병원 불교자원봉사자대회는 불교자원봉사자 교육과 수도권병원 자원봉사단 발대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대한불교조계종 자원봉사단원으로서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지난활동에 대한 격려를 하는 무대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병원전법단은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불교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불교임상전문지도자교육

아픔을 가진 환자들에게 부처님의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2010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5월 30일(수료식)까지 8개월간 불교임상전문지도자 입문과정 진행하였으며 총 14분의 스님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교육참여로 환자들을 위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1년간 새롭게 개원한 병원법당

-2010년 5월 19일 한국원자력학원 원자력병원 병원법당 개원
-2011년 2월 26일 충북대학교병원 법당 개원
-2011년 3월 26일 철국경북대학교병원법당 개원
-2011년 5월 6일 서울대학교 사립보라매병원법당 개원



병원법당 법요집 발간

백전불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병원법당법요집과 천수경을 발간해서 병원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원법당 및 지도법사 리스트

서울대학교병원	은진스님
서울대학교 분당서울대병원	성법스님
서울대학교 사립보라매병원	현수스님
서울아산병원	선문스님
경향병원	지홍스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해광스님
고려대학교 안암의료원 중앙대학교의료원	무관스님
고려대학교 구로의료원	대영스님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	지현스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덕산스님
인하대병원	해성스님
서울보훈병원	효록스님
한국원자력학원 원자력병원	경홍스님
대구의료원	태범스님
영남대학교 병원	여행스님
철국경북대학교병원	정법스님
대구보훈병원	인하스님
대구대현청당요양병원	정효스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대일스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종진스님
거제마하재활병원	무구스님
충북대학교병원	지현스님
	지명스님
	원행스님

※ 앞으로도 병원전법단은 병원에 있는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달하기 위해 계속 정진할 계획입니다.